

# KB증권이 태니엄을 통해 최적화된 패치 적용과 OS 관리를 구현하는 방법

## KB 증권

분야  
파이낸스 금융권

규모  
임직원 3000명

본사  
서울, 여의도

태니엄 솔루션  
태니엄 Core, Patch, Asset, Deploy

### 태니엄 도입 후 KB증권의 성과

- KB증권은 패치 시간을 1주일에서 30분으로, OS 업데이트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 KB증권은 리니어 체인으로 대용량 파일 배포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부하를 해소했다.
- KB증권은 태니엄 코어 구축 후 거점 서버관리 포인트가 사라졌고, 주간/야간 관계없이 상시배포 체계도 확보했다.
- 관련 업무를 위한 지원인력이 감소됐고, 주간 리포트 포맷의 보고 시스템은 실시간 현황 파악 체계로 변경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인 KB 증권에서 기존 패치 솔루션이 가진 기술적 한계로 패치와 OS 업그레이드에 지연과 불안정성이 발생되었다.

## KB증권이 태니엄으로 보안과 IT 자산관리를 업그레이드 한 배경 및 결과

전통적인 증권사 업무는 주식거래 체결 같은 매매가 핵심 서비스였다. 하지만 최근 고객의 자산관리(웰스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증권사의 시스템 철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KB증권은 IT시스템을 활용해 매매 중심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의사결정, 투자 등 한단계 진보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민했다. 현재 KB증권이 추진 중인 정보계 차세대시스템 사업도 이 같은 철학을 반영해 준비 중이다. .

금융 분야에서 보안 문제는 고객 신뢰와 자산 감소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KB증권은 로그포제이(Log4j) 취약점 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자산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 구축을 추진했다. .

KB증권은 장기간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한 결과 비용과 업무 최적화 측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태니엄 도입을 결정 하였다. 솔루션 구축 후 수개월이 걸리던 작업은 몇 시간 내로 단축됐고, 자산 관리와 성능 및 보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태니엄의 다양한 모듈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버 패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IT 운영 효율 극대화도 이뤄냈다.

KB증권이 태니엄을 구축한 과정은 단순한 도입 수준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정보보호본부에서 정책수립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IT본부가 이를 적용 및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KB증권이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 IT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다.

## 1주일에서 30분으로, 4개월에서 1개월로

태니엄은 원도 패치 배포 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작업 시간 대폭 개선 및 보안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 도입이 결정됐다. 무엇보다 태니엄의 리니어 체인(Linear Chain) 기술은 수초 내 시스템 상황 파악과 패치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KB증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KB증권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검증 (PoC)을 신중하고, 면밀히 진행한다. 평균 1년 정도의 파일럿 사업을 통해 충분한 기술검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각도의 테스트와 보고를 통해 부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 전파의 경우 우선 PoC 부서, 기획부서를 거쳐 IT본부로 확산, 그리고 현업으로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을 거친다”

KB증권,  
홍성우 IT본부장(CIO)

KB증권의 기존 패치작업은 매월 1주일 정도 소요됐지만, 태니엄 도입 이후에는 30분 이내로 시간이 단축됐다.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도 4개월에서 1개월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2년마다 발생하는 윈도우10 SAC 버전 업그레이드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됐지만 태니엄 도입을 통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태니엄의 리니어 체인을 활용해 대용량 파일 배포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부하도 해소할 수 있었다.

기존 윈도우 패치는 10메가에서 20메가 용량으로 매월 배포됐다. 하지만 최근 400메가 정도로 용량이 큰 쪽으로 확대돼 본사 네트워크가 원활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점망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으로 제어된 상황에선 패치를 일상 업무 시간에 배포하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

“패치는 내부 보안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패치를 도입할 때 빠르고, 정확하며, 부하 없이 리포팅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태니엄 솔루션 도입으로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몇 시간 내로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리포팅으로 현황 파악이 용이해졌다”

- KB증권, 윤종빈 차장

## 향후 추가 모듈 확대 도입 예정

태니엄 도입 후 KB증권은 거점 서버관리 포인트가 사라졌으며, 주간/야간 관계없이 상시배포 체계도 마련됐다. 또한 지점의 네트워크 부하가 없어졌고, 배포기간과 지원인력 감소 효과도 이뤄졌다. 주간 리포트 형태로 제공되던 보고 체계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됐다. 향후 서버 패치 프로세스 자동화로 정합성 데이터와 투입 리소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서버 자원 확인 및 실시간 정보 확인을 통한 장애 대응 방안 사전 점검체계를 갖춰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향후 IT자산관리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니엄 에셋(Tanium Asset) 모듈 도입해 하드웨어 성능정보를 기반으로 기기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단말 리소스 현황이 스플링크와 연동돼 기존 감가상각 기준의 사용자 단말 교체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사용자 단말 리소스 현황을 기반으로 단말 교체 프로세스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실시간 사용 현황 파악은 소프트웨어 리소스 분배를 통한 자산 구매비용을 절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태니엄에서 제공하는 여러 모듈을 도입해 엔드포인트 운영시 발생하는 다양한 관리 포인트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내 기기의 정책을 단순화하고, 중앙 집중화된 관리하며, 운영을 통합화 하여 전반적인 IT 보안 및 운영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태니엄 솔루션 도입으로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몇 시간 내로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리포팅으로 현황 파악이 용이해졌다”

- KB증권, 윤종빈 차장

태니엄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IT 환경을 위해 구축된 엔드포인트 관리 및 보안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50% 이상의 기업, 금융 기관, 미군 기관 등 까다로운 IT 조직의 다수가 자신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사이버 복원력 유지를 위해 태니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